

現代電子

大宇重工業

우체국 안내시스템 開發

油壓 컨트롤 밸브 國 化

▲ 현대전자

현대전자는 최근 우체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체국 관련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체국 안내시스템을 개발, 서울 중앙우체국을 비롯한 전국 20개 우체국에 설치했다.

이 시스템은 우편번호·우편요금·우편업무·체신보험·체신예금·우편주문 판매·특급우편 등 우체국 관련 정보와 열차 승차권 및 각종 행사 관람권 발매안내 등 생활정보를 갖추고 있으며 이용자가 손으로 화면을 짚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방식으로 되어 있어 사용이 간편하다.

▲ 대우중공업

대우중공업은 지금까지 전량수입에 의존해 오던 굴삭기용 유압컨트롤 밸브를 국산화했다고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연간 2억달러에 이르는 굴삭기용수입 유압부품 중 10%인 2천만 달러가량이 올해부터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케 됐다.

이 유압컨트롤밸브는 일본제에 비해서도 복합동작 성능이 우수하고 유압치료의 효율성도 높아 10%정도 연료도

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.

▲ 금성사

금성사는 초미니사이즈로 기존 슬림 카셋과 차별화시킨

大宇電子 金星社 SKC 초미니 싱글카셋 개발 市販
8mm 테이프 하반기 量産
한글버튼 VCR 개발 市販

싱글데크 스테레오 카셋을 새로 선보였다.

이 제품은 저음과 고음을 적당히 조절해 주는 톤컨트롤 기능과 테이프의 지정된 주행이 끝나면 자동으로 데크가

정지하는 기능, 버튼하나만 눌러도 자동레코딩되는 윈터치레코딩 기능을 갖추고 있다.

▲ SKC

SKC가 올 하반기부터 8mm 테이프를 양산한다.

SKC는 비디오테이프 수요가 현행 2분의 1인치 제품에서 8mm 슈퍼 VHS용 등 하이그레이드쪽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소량 생산해온 8mm 테이프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.

▲ 대우전자

대우전자가 한글표기 버튼을 채용한 VCR을 개발, 시판에 들어갔다. 이 제품(DVR-4076)은 본체 및 리모컨의 버튼에 기능을 한글로 표시, 편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.

또 밤 10시가 되면 패널의 밝기가 어두워지고 아침 6시가 되면 밝아지는 자동밝기조절 기능과 순간 작동방식 등 다양한 첨단기능을 채용했다.

이 밖에도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, 외관을 라운드형으로 처리하고 기존 VCR의 주된 색상인 검정 대신 부드러운 짙은 회색을 채택했다. 소비자 가격 42만 8천원.